

제주방언의 어휘 분화현상*

김 원 보
(제주대학교)

Kim Wonbo. 2012. **A Study on the Division of Lexical Items in the Jeju Dialect.**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17(1), 1-11.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division of lexical items in the Jeju dialect and produce the linguistic maps on the Jeju dialect lexical items corresponding to each of Korean standard 'maemi' (=cicada), 'olchaengi' (=tadpole), 'sora' (= turban shell) and 'muneo' (=octopus). The Jeju dialect lexical item equivalent to Korean standard 'maemi' (=cicada) is divided into three forms; 'jae' type (Jocheon-eup and Gujwa-eup), 'potjari' type (Seongsan-eup, Pyoseon-eup and Namwon-eup) and 'jaeyeol' type (other areas in the Jeju island). There are four Jeju dialect forms of 'olchaengi' (=tadpole) found across the Jeju island; 'Menjugi' (Jeju city, Aewol-eup, Hallim-eup, Hangeong-myeon, Daejeong-eup, Andeong-myeon and Seogwipo city), 'olchaengi' (Jocheon-eup, Gujwa-eup and Udo), 'gengberu' (Seonheul in Gujwa-eup and Namwon-eup) and 'gonori' (Pyoseon-myeon). We can find two types of lexical items in the Jeju dialect signifying 'sora' (=turban shell); 'gujunggi' (most areas in Aewol-eup, Hallim-eup, Hangeong-myeon, Daejeong-eup, and Andeong-myeon) and 'gujunggi' (the other areas excluding those parts located in the west of the jeju island). The Jeju dialect has used two different lexical forms equivalent to Korean standard 'muneo' (=octopus); 'mungge' (Eastern parts of Jeju city, Jocheon-eup, Gujwa-eup, Seongsan-eup, Pyoseon-eup and some parts in Namwon-eup) and 'mulkkureok' (the other areas excluding those parts located in the east of the Jeju island).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division, Jeju dialect, linguistic maps, lexical items, Korean standard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A-A00081).

1. 서론

제주방언은 국어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음성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어에서는 사라진 음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중세국어의 고어형태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제주방언은 방언학자들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내 방언의 분화현상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제주는 작은 지역이어서 지역 단위별로 언어사용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제주도민의 언어사용 현황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사물을 지칭하는 어휘일지라도 그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즉 제주는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어휘가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적 분화 양상을 보여 제주방언을 어휘사용별로 몇 개의 하위방언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 제주방언 전공자들은 최근 제주방언을 몇 개의 하위방언으로 구분하여 제주방언의 언어지도를 작성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본고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몇몇 명사어휘를 바탕으로 제주 전역에 걸쳐서 조사한 후 제주 지역 내 방언의 분화현상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제주방언의 지역적 분화현상에 대해서는 80년대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2000년 이후 대표적 연구로는 오창명(2002), 김순자(2011), 강석한 등(2011)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오창명(2002)은 제주 전역에 걸쳐서 매미 및 각종 매미류에 대응하는 제주방언형을 조사하여 채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언지도를 그렸다.

오창명(2002)에 따르면 매미의 방언형으로 ‘재열, 재, 자리, 젤’ 등이 실현되고, ‘재열’은 제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재, 자’는 구좌읍 해안가와 남원읍 표선면 지역에서, ‘자리’는 성산읍과 남원읍 지역에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털매미의 제주방언형은 ‘죽재열, 풋재열, 풋재, 풋자’ 등으로 실현된다고 한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포함한 서부지역에서는 ‘죽재열’이 우세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꽃재열, 꽃재, 꽃자’ 등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말메미는 제주방언에서 ‘왕재열, 왕자리, 왕젤, 왕재, 왕자’ 등으로 실현되었다. 왕재열이 가장 널리 발견되었고, 그 밖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고 한다. 유지메미의 방언형은 ‘메옹재열, 메옹이 재열, 멘중재열, 멩중재열, 심방재열, 사랑재, 상웨재’ 등으로 실현되었으나 제주의 일부 지역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메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구제기재열, 고작재열, 극삭재열, 고시약재, 고삭자리, 송곳새기’ 등을 들고 있다. ‘구제기재열, 고작재열’ 등은 서귀포시를 포함한 서부지역에서, ‘고시약재, 고삭자리’ 등은 구좌 세화, 성산읍과 남원읍 지역에서 실현되고, ‘극삭재열’은 서귀포시의 옛 서귀읍지역에서, ‘송곳새기’는 하효동에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김순자(2011)는 의식주, 농사 및 일상생활 관련 310 여 개의 어휘를 제주 전역에 걸쳐서 조사 한 후 총 161장의 ‘제주도 언어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이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제주도 방언지도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제주도 방언의 구획은 1300년부터 1416년까지 유지된 조천에서 서귀포까지를 아우르는 동쪽지역과 제주시에서 중문까지를 포괄하는 서쪽지역을 구분짓는 <동서도현도>와 1416년에 설치된 제주읍, 대정현, 정의현을 구분하는 <제주삼읍도>를 포개어 놓은 것과 같고, 그 결과 제주도 방언은 크게 ① 제주도 동북방언(조천, 구좌, 우도), ② 제주도 서북방언(제주시, 애월, 한림, 비양도, 한경), ③ 제주도 동남방언(서귀포, 남원, 표선, 성산), ④ 제주도 서남방언(중문, 안덕, 대정, 가파도, 마라도) 네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순자(2011) 연구의 한계는 그녀가 스스로 밝혔듯이 14개 읍면지역 가운데 단지 1개 지점씩만을 조사지점으로 정함으로써 조사지점의 분화상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강석한 등(2011)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제주 방언권을 세분할 때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 동과 서쪽으로 하위 구분하거나 혹은 과거 행정 중심지를 기준으로 하여 세 개 지역(제주, 정의, 대정)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현재의 행정 구획선과 일치하는 남과 북쪽 지역으로 하위 구분하여왔다. 그리고 구분하는 기준은 어휘사용의 차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강석한(2011)은 제주 방언 각 지역의 초점과 주제에 구현되는 음성/음운론적인 특징을 관찰하여 제주 방언이

4 김 원 보

두 개의 하위 방언지역으로 양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제주방언에서 의미론상의 초점과 주제가 구현하는 운율특징이 제주도 방언의 하위 방언권을 분류하는 매개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석한 등(2011)은 서남쪽의 고산 색달지역을, 그리고 동남쪽의 선홍 성산수산지역의 여성화자 각 3명씩 총 12명을 조사한 후, 제주방언은 주제와 초점의 음성/음운론적 분석을 통하여 두 지역으로 양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음성학적으로 길이가 아니라, 피치 액센트 형태 및 피치 범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와 초점을 구현하는 피치 범위는 남서 지역이 북동 지역보다 평균 50Hz 정도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서 지역이 주제와 초점 구현에 좀 더 강한 액센트를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은 제주방언의 하위분류를 위해서 제주 방언의 갖는 고유의 주제사 및 초점사에 대한 음성 및 음운론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제주방언의 분화 연구

이 절에서는 제주전역에 걸쳐서 조사한 어휘목록을 토대로 제주방언의 하위방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3.1 조사대상 및 지역

조사대상은 비교적 표준어의 영향을 덜 받아서 제주어를 잘 보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70대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지역에서 남녀의 성별 차이를 염두에 두지않고 각 지역별로 1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조사장소가 노인회관이어서 1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해도 주변에 있던 보통 3-4명 이상의 사람들이 질문에 함께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제주전역에 걸쳐서 선정하였다.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이 제주전역에 걸쳐서 25개마을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2 조사방법

제주방언의 분화를 염두에 두고 조사할 조사어휘 목록을 작성한 후 노인 회관 등으로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장소에서 피조사자를 선택한 후 면담자가 질문하고 피조사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면담자는 피조사자의 대답을 기록지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예를 들어 ‘매미’의 지역별 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동네에서는 ‘매미’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조사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3.3 조사목록 및 결과

조사어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명사어휘로 한정하였으며, 조사어휘의 형평을 고려하여 바다관련 어휘도 포함시켰다. 조사한 명사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 1)

| | | | | | | | | | | |
|------|---|-----|----|-----|-----|----|----|---|---|----|
| 마농지시 | 곳 | 울챙이 | 매미 | 바가지 | 눈꺼풀 | 늬물 | 문어 | 톨 | 계 | 소리 |
|------|---|-----|----|-----|-----|----|----|---|---|----|

조사어휘에 대하여 지역별 조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6 김 원 보

(표 2)

| | | | | | | | | | | | |
|-------|-----------|-------|-------------------|----------------------|------|------|-------|------------|---|--------|--------|
| 지역명 | 마농지시 | 곳 | 올쟁이 | 메미 | 바가지 | 눈꺼풀 | 늑물 | 물어 | 톨 | 계 | 소리 |
| 구좌 덕천 | 콤포사나지시 | 고지 | 올쟁이 | 재 | 박세기 | 눈깍질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김녕 | 마농지시 | 곳 | 올쟁이 | 왕짚 | 바가지 | 눈뚝개 | 늑물/송키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종달 | 마농지시 | 설덕속 | 올쟁이 | 왕짚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우도 우도 | 마농지시 | 곳 | 쟁베리 | 메미 | 박세기 | 눈깍테기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조천 신촌 | 마농지시 | 곳/고자 | 올쟁이 | 짚 | 박세기 | 눈뚝개 | 송키 | 몽개 | 톨 | 갱이/도퉁개 | 구쟁기(이) |
| 선흥 | 마농지시 | 고 | 쟁베리 | 짚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이) |
| 에월 납읍 | 마농지 | 수덕 | 쟁주기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한림 금악 | 마농지 | 수덕 | 쟁주기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송키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귀덕 | 마농지/송제마농지 | 수덕 | 쟁주기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송키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한경 신양 | 마농지 | 영 | 쟁주기 | 재열/꽃/왕재열 | 박세기 | 눈위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고산 | 마농지시 | 꽃자왈 | 쟁주기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대정 보성 | 마농지 | 곳/고지 | 쟁주기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송키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신령 | 마농지 | 꽃자왈 | 쟁주기 | 재열 | 대왓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안덕 화순 | 마농지시 | 곳 | 쟁주기 | 재열 | 되악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성산 신양 | 마농지시 | 고지/고잡 | 카골개 비새끼 쟁베루 | 꽃자리/ 왕자리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표선 표선 | 마농지시/대산이지 | 곳 | 코노리 | 꽃자리/ 왕자리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가시리 | 마농지 | 곳 | 쟁베루 | 꽃제/ 왕제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남원 수망 | 마농지시 | 곳 | 강베루 쟁주기 | 왕자리/ 꽃자리/ 코지각시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의귀 | 마농지시 | 곳 | 강베루 | 재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몽개/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제주 도남 | 마농지시 | 꽃자왈 | 쟁주기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노형 | 마농지시 | 곳 | 쟁주기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건입 | 마농지시 | 곳 | 쟁주기 | 재열 | 록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몽개 | 톨 | 갱이 | 구쟁기 |
| 서귀 토평 | 마농지시 | 곳 | 올쟁이 | 죽제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하효 | 마농지시 | 곳 | 쟁주기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 법환 | 마농지시 | 곳 | 올쟁이 | 재열 | 박세기 | 눈뚝개 | 늑물 | 물꾸리 | 톳 | 갱이 | 구쟁기 |

위의 조사어휘들을 자세히 보면 ‘마농지시’, ‘박세기’, ‘늑물’, ‘눈꺼풀’, ‘툫’ 등의 어휘는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고 ‘꽃’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는 있어 보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비교적 지역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미’, ‘올챙이’, ‘문어’, ‘소라’ 의 어휘에 대한 분화를 다루면서 지역별 차이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3.4 논의

오창명(2002)에 따르면 제주에는 최소 7개 종류의 ‘매미’가 서식하고 있었다. 털매미(쌍쌍매미), 말매미(검은매미), 유지매미(기름매미), 참매미(매미), 애매미, 쓰름매미(쓰르라미), 풀매미가 그것이다. 이중 2-3개는 민가에서 먼 산중에 서식하는 매미였고 최소 4종류가 민가근처에서 발견되어 ‘매미’의 각기 다른 방언형으로 실현되었다고 주장한다. ‘매미’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제주방언의 하위부류로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구좌 조천 지역에서의 ‘재’형(쟁, 왕재, 왕잘 등), 성산 표선 남원 지역에서의 ‘꽃자리’형(꽃재, 왕자리 고지각시 등)과 그 밖의 지역에서의 ‘재열’형(재열, 재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매미’ 어휘에 대한 제주지역의 방언분화를 토대로 방언지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방언지도를 보면 김순자(2011)가 주장했듯이 1300년부터 1416년까지 유지된 조천에서 서귀포까지를 아우르는 동쪽지역과 제주시에서 중문까지를 포괄하는 서쪽지역을 구분짓는 <동서도현도>와 1416년에 설치된 제주읍, 대정현, 정의현을 구분하는 <제주삼읍도>를 포개어 놓은 것과 같이 세계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올챙이’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크게 네 개의 어휘가 지역별로 달리 사용되고 있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멘주기’로, 조천 구좌 우도 등에서는 ‘올챙이’로, 구좌의 선흘, 남원에서는 ‘깡배루’로, 표선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노리’ 등으로 불리고 있었다. ‘올챙이’에 대한 언어지도는 다음과 같다.



위 지도가 보여주듯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멘주기’와 ‘올챙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남원읍에서도 ‘멘주기’와 ‘깡배루’가 함께 쓰이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표선의 일부지역에서는 ‘장구벌레’의 방언형인 ‘고노리’가 올챙이의 방언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라’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크게 ‘구쟁기’와 ‘구제기’ 두가지 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서쪽지역의 애월 일부 지역과 한림에서 안덕까지는 ‘구제기’ 형이 사용되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구쟁기’ 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제주방언에서 ‘소라’의 언어지도는 다음과 같다.



위의 언어지도를 보면 조선시대 삼읍체제에서 제주읍과 정의현에서는 '구제기(구제이)'라는 동일한 어휘형태가 쓰이고 있으나 대정현 지역에서만 다른 형태인 '구제기(구제이)' 형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문어의 방언형은 '몽개'와 '물꾸릭(물꾸릭)'이 사용되고 있었다. '몽개' 형태는 제주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주시의 동쪽 일부지역을 포함한 동쪽 지역인 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에 이르는 지역에서 발견되며, '물꾸릭' 형태는 제주시의 서부지역과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중문, 서귀포지역과 남원읍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방언에서 '문어'의 언어지도는 다음과 같다.



특이한 사실로 경계지역인 제주시와 남원읍 지역은 ‘몽게’와 ‘물꾸릭’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경계지역이 이웃지역과 빈번한 교류로 이웃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형을 수용한 결과 문어의 두가지 방언형이 경계지역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매미’, ‘올챙이’, ‘문어’, ‘소라’의 어휘에 대한 제주방언의 지역적 분화를 살펴보았다. ‘올챙이’에 해당하는 어휘형태가 제주방언에서 가장 여러 형태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챙이’에 해당하는 제주방언의 어휘형태가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으로 실현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매미’에 해당하는 제주방언의 어휘형태도 다양하지만, 오창명(2002)이 지적했듯이 제주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매미에 대해 지역마다 서로 약간씩 다른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어’와 ‘소라’에 대한 어휘형태의 지역적 분화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동일한 어원에서 약간의 음변화 과정을 거쳐 지역별로 조금씩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로 두 지역을 분할하는 경계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두지역에서 사용되는 어휘형태가 모두 발견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애월읍 지역에서는 ‘소라’의 어휘형태 ‘구제기’와 ‘구쟁기’ 모두가 발견되며, ‘문어’에 대해서도 ‘물꾸릭’과 ‘몽게’ 두가지 형태 모두가 제주시와 남원읍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서귀포지역에서 ‘멘주기’와 ‘올챙이’ 두가지 형태모두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멘주기’ 형태가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지역에 나타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지만 ‘올챙이’ 형태는 조천 구좌지역에서만 실현되는 형태이고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물론 서귀포와 인접한 남원지역에서도 인근지역에서 실현되는 ‘멘주기’와 ‘깡베루’가 사용되고 있어서 서귀포 지역에서 실현되는 ‘올챙이’에 대한 설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경계지역에서 서로 다른 두가지 어휘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과

거에 존재했던 어휘사용의 지역별 차이가 교통 및 왕래가 빈번해지고 오일 장이나 결혼 등을 통한 인근지역과의 잦은 왕래로 제주지역에서의 어휘적 분화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석한, 원종섭, 김원보. 2011. "초점과 주제의 음성/음운론적 분석을 통한 제주방언 분화연구", 언어학 연구 21, 1-16.
- 강영봉. 1993. 제주도 방언의 동물이름 연구-어휘론을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영봉외.2007. 방언이야기. 서울: 태학사
- 강정희. 2005. 제주방언형태변화연구. 서울: 역락
- 오창명. 2002. "제주도의 언어지도(1)-메미류-", 탐라문화 22, 55-74.
- 이상규 안귀남. 2007. 한국어방언학. 서울: 학연사
- 이상규. 2007. 방언의 미학. 과주: (주)살림출판사.
- 김순자. 2011.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주시 제주대화로 102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690-756
Phone: (064)754-2436
Fax: (064)702-6814
E-mail: kimwonbo@jejunu.ac.kr

접수일자: 2012. 2. 21
수정일자: 2012. 4. 5
게재결정: 2012. 4. 13